

### 직장인, 자신의 브랜드 가치는?

## 男 4,422만원

직장인들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평균 3천994만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자사 회원인 직장인 1천71명을 상대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평균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 평균은 4천422만원, 여성은

## 女 3,641만원

3천641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회사 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보이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직급으로는 ‘과장급’(27.8%), ‘대리급’(21.4%), ‘부장급’(14.6%), ‘임원급’(13.8%), ‘CEO’(12.2%), ‘평사원’(10.2%) 등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사원의 유형으로는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원’(33.6%),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원’(14.1%),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원’(12.6%),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원’(11.9%), ‘자기계발에 열심인 사원’(11.0%) 등이 꼽혔다.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그렇다’고 답했고 주



### 청년층 졸업후 취업까지 평균 1년 걸린다

15~29세 청년층이 졸업 후 취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19세 청소년층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고 60분이 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만, 가족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모아 발표한 ‘200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작년 5월 현재 임금근로 형태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15~29세 청년층이 졸업이나 종별 이후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2개월로 조사됐다.

졸업·종별 후 1년 안에 취업한 사람의 비중도 74.2%로 2005년 같은 시점보다 2.7%포인트 줄었다.

이들은 주로 소개·추천(44.5%)으로 일자리를 찾았고, 다음으로 신문·잡지·인터넷 응모(27.5) 등을 취업 경로로 꼽았다.

휴대전화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2006년 기준 15~19세 청소년의 85.3%, 20~24세의 97.3%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즐겨 사용해 15~19세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60.1건으로 2005년의 59.5건보다 0.6건 늘었다.

지난해 청소년의 주당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15~19세 14시간, 20~24세 19.3시간으로, 하루 2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휴대전화·컴퓨터와 친한 이들 청소년들이 가족들과는 더 서먹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 15~19세, 20~24세 청소년의 각각 60.8%, 5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조사 당시의 67.8%, 67.7%에 비해 7.0%포인트, 7.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 직장인 54% “어버이 날 공휴일로” 5월 기념일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

직장인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5월 기념일은 ‘어버이날’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어버이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최근 자사 회원인 직장인 1천574명에게 ‘5월 기념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어버이 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6.7%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날’을 꼽은 응답자는 11.1%였고 ‘어린이 날’(5.5%), ‘부부의 날’(3.7%), ‘스승의 날’(1.7%), ‘성년의 날’(1.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꼭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하는 기념일’에 대한 질문에도 ‘어버이 날’을 선택한 응답자가 54.0%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의 날’이라는 응답자는 28.5%, ‘부부의 날’은 7.5%였다.

한편 직장인들은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41.2%)과 ‘의류·잡화’(18.4%), ‘외식 등 나들이’(14.5%), 어린이날 선물로는 ‘용돈’(23.8%)과 ‘장난감’(17.4%), ‘책’(14.3%) 등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 “美쇠고기 광우병 위험 문서 은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국제기구에 통보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농림부가 지난달 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문서를 통해 밝혔으나 해당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이날 공개한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OIE가 지난 3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등급을 ‘위험통제국가’로 잠정 결정할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불안정한 협력추진제, 교차오염 우려 등을 들어 미국의 광우병 관리가 미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회의 자료 제출요구에 정부는 대외비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가 자꾸 불거질 경우 한미 FTA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로 새출발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7일부터 코레일(KORAIL)로 사명을 바꾸고 새look 태어났다.

이철 코레일 사장은 2일 과천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도공사라는 이름은 법인명으로부터 앞으로 모든 대내외 명칭을 코레일로 쓰기로 했다”면서 “이로써 철도공사는 코레일 그룹이 되고 자회사는 계열사로 불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명이 바뀐 계열사는 코레일 투어서비스(전 KTX관광레저), 코레일전기(전 한국철도전기시스템), 코레일유통(전 한국철도유통), 코레일트랙(전 한국철도시설산업),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서비스넷+IP&C), 코레일개발(한국철도개발+파라미터) 등 6개사이며 코레일엔지니어링, 코레일애드컴, 코레일로지스 등 3개사는 이전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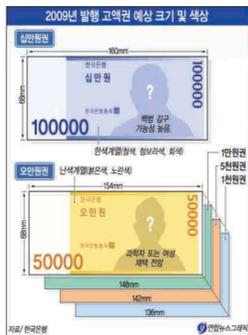
이철 사장은 용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7월께 역세권 개발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10만원권 초상인물 김구 유력 5만원권 장영실·신사임당 거론

#### 크기·색상 윤곽 드러내

2009년 상반기 발행예정인 10만원, 5만원 지폐의 인물초상과 보조소재 디자인 등을 확정하는 문제가 큰 숙제로 남아 있지만 고액권의 크기와 색상은 거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작년초 발행된 새 5천원권과 올해 초 발행된 새 1만원, 1천원권의 크기와 색상은 향후 고액권 발행까지 염두에 두고 확정된 결과물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현재 유통중인 새 지폐의 크기는 세로가 68mm로 고정된 가운데 가로 길이가 6mm씩 권종간 차이를 두도록 돼 있다.



한 색상이, 10만원권은 차가운 색상이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5만원권은 붉은색 또는 노란색이 기초색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액권이 될 10만원권은 차가운 색상으로 정해진다. 현재 유로화 지폐는 회색, 적색, 청색, 오렌지색, 녹색, 황색 등으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이 교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권종구분을 위해 보색 컬러를 교차로 적용하는 패턴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편 인물 초상으로 10만원권은 백범 김구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5만원권은 장영실, 신사임당, 이태영, 유관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순서에 의하면 5만원권은 따뜻한



#### 어린이 승객을 위하여

아시아나항공은 4.5일 이틀간 김포공항 2층 아시아나항공 카운터에 포토존을 마련하고 어린이 고객들이 만화 캐릭터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함은 물론 페이스페인팅과 매직쇼 등을 선사한다. 사진은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때의 모습.

## 궁핍한 가계 저축여력 없다

#### 지난해 개인저축률 3.5%... 1995년 이후 해마다 급락

#### 총저축률은 31.6%... 수출로 번 돈 대부분 기업 차지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규모가 대만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개인저축률은 최근 몇 년 사이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락하면서 독일이나 대만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국가 전체로 볼 때 늘어난 소득 가운데 지출하고 남은 저축의 상당부분이 기업의 저축이었을 뿐 가계는 소득 가운데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 거의 없어 먹고 사는 데 급급할 정도로 빈곤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총저축률은 지난해 31.6%를 나타내 2005년의 32.9%에 비해 1.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총저축률은 기업과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가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며 총저축은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국민총저축률은 1995년 36.3%, 2000년 33.7% 등에 비해서는 소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볼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만의 국민총저축률은 지난해 26.9%였으며 2005년 기준은 일본이 26.0%, 독일 21.4%, 미국 13.0%, 영국 14.0% 등이다. 이처럼 국민총저축률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지만 개인의 저축률을 따져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비율로 나타낸 개인순저축률은 지난해 3.5%로 전년 4.2%에 비해 0.7%포인트 떨어졌다.

1995년 개인순저축률이 16.4%에 달했으나 2000년 9.9%, 2001년 9.9%, 2004년 5.7% 등에 비해 수직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95년 이후 우리나라의 개인순저축률 하락속도는 외국과 비교해보면 현기증에 날 정도다. 대만의 경우 95년 16.3%였던 개인순저축률이 매년 완만하 하락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2005년에는 12.2%를 나타냈다. 독일은 95년 11.1%에서 2005년 10.7%로 10년 새 개인저축률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100저축률

■ 개인순저축률 추이 (단위: %)

구분	95년	2000	'01	'02	'03	'04	'05	'06
한국	16.4	9.9	9.9	2.0	3.6	5.7	4.2	3.5
미국	4.6	2.3	1.8	2.4	2.1	2.0	-0.4	-1.1
일본	11.1	8.7	5.1	5.0	3.9	3.6	3.0	
독일	11.3	9.8	10.3	10.7	10.4	10.6	10.7	
영국	5.5	0.4	1.6	0.0	1.1	-1.4	-0.3	
대만	16.3	15.9	15.3	14.9	14.8	13.3	12.2	

일본은 같은 기간 11.1%에서 3.0%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급하지는 않다.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 하락폭이 훨씬 큰 셈이다.

국민총저축률이 외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개인저축률만 급락한 것은 수출 호조로 벌어들인 국민총소득의 상당부분이 기업이윤으로 흘러들어 갔으나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계소득이 별로 늘지 않은 채 소비만 이뤄져 서민 가계의 저축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저축률 하락은 소득양극화로 인해 고소득층보다는 중·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저축률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광주 등 전국 순회 ‘공익광고 전시회’

#### 4일부터 상무시민공원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정순준)는 4일부터 광주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 순회 ‘공익광고 전시회’를 개최한다.

공익광고 순회전시는 공익광고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공익광고를 소개하는 행사로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6년 대한민국 공익광고대상 수상작’ 등 국내 작품 48점과 해외

의 공익광고 60점 등이 소개된다.

순회 전시는 광주 상무시민공원(4~6일)을 비롯, ▲대전 시립미술관(11~13일) ▲울산 대공원(18~20일) ▲부산 백스코(25~27일) 등이다. 6월에는 고양 일산호수공원(1~3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7~11일) 등에서 열린다.

순회전시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 문제, 가정폭력,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 가계 자산의 77%가 부동산 주택보유 지나쳐 국가 재앙 올수도”

####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밝혀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이 한국 가계 자산의 기형적인 부동산 집중 현상이 여전하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회장은 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회 미래에셋 자산배분포럼에서 “한국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7%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자산구조는 기형적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주택에 집착하는 현상은 수익성 부동산이 중요 투자대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국제 자본시장의 흐름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20년 후에는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산의 77%를 주택으로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며 “인구 성장기와 고도 성장기에 가지고 있던 행태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국가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회장은 이어 “반면 외국계 펀드들은 그 동안 국내에서 5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오피스빌딩 65개에 투자해 끊임없이 운영수익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매각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투자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기회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